

S - 2  
**Abutment for RPD**



곽재영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1991. 2 )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석사 ( 1994. 2 )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 ( 1999. 2 )  
서울대학교 병원 보철과 전공의 ( 1991. 3 - 1994. 2 )  
서울대학교 병원 보철과 전임의 ( 1997. 5 - 1998. 4 )  
삼성 서울병원 전임의 ( 1998. 5 - 1999. 2 )  
한국전력 부속 한일병원 보철과장 ( 1999. 3 - 2000. 8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 ( 2000. 9 )

국소의치에 가해지는 힘은 수직력, 수평력, 비틀림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소의치는 이러한 해로운 힘에 대한 저항으로 직접유지장치, 간접유지장치, 의치상등의 구성성분을 적절히 이용하여 생리적 한계내에서 국소의치가 기능하게 한다.

이러한 구성성분중에서 지대치에 접촉하는 국소의치 부위는 국소의치의 장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지대치에 접촉하는 국소의치의 구성성분중 레스트와 클래스프 구성성분은 국소의 치에 가해지는 기능력을 지대치를 통해 골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치아지지 국소의치의 경우나 조직지지국소의치의 경우 모두에서 지대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국소의치 설계에 있어서 고민이 되고 또한 중요한 면이다.

따라서 이 강연에서는 이러한 국소의치설계에 관여하는 요소중에서 국소의치의 중요 구성성분이 장착되는 지대치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소의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면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소의치 설계에 있어 지대치의 처리는 우선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눌수 있다. 그 하나가 지대치를 자연치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surveyed crown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지대치를 자연치 상태로 사용해서 얻는 장점은 심미성, 치아 보존성, 치료기간의 단축, 경제적 장점 등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지대치를 금관으로 하는 경우는 치태관리의 문제가 생기지만 이를 적절히 조절할 경우 그 방법상 국소의치 자체의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경우를 보인다.

Surveyed crown을 할 경우에도 최후방 지대치를 여러개 묶어서 기계적 장점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각각 생리적 운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금관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국소의치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중요하지만 국소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치아의 구조적 견진합과 해부학적 사항 즉 치근 표면적이나 치근의 형태, 치근의 수, 치관 치근비, 치아의 경사, 치아의 위치등의 치아요인과 잔존 치조제의 위치, 상태등이 중요 요소로 관여한다.

이러한 지대치의 설계에 따라 국소의치는 그 수명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떠한 설계를 하더라도 그것을 환자가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